

구인걸까. 사람들은 왜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견뎌야 하는 걸까. 인생이 대체 뭐냐고 물으면 어른들은 그 앞에서 말을 잊지 못했다. 답답했다.

삶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해 이리저리 떠다녔다.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길 위에서 만났다. 힘 좀 쓴다는 무리, 자신들과 한패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마주했다. 노숙도 했다. 밀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치열한 삶이었다. 라면 하나에 생사를 건 이들을 보며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삶이란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대한 반감으로 나선 길은 아니었다. 때문에 세상사 약다구니 틀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절대로 자신을 놓아본 적이 없었다. 교복입은 학생들에게 괜히 해코지를 하는 이들을 보면 발뺌하고 나서서 말했다.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푸는데 힘을 자신의 방편으로 삼는 이들이 가여웠다.

“분명히 타락할 수도 있었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아마 어렵듯이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다보니 성품은 타고나고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물들지 않는거였구나 싶어요.”

온 몸에 화상입은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간 적도 있었다. 그는 거기서 6개월이나 친구도 아닌 이를 보살폈다. 연고없는 사람이라 차마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다. 24시간 간호하며 그가 낫기를 기다렸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생사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들을 보았다. 삶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 자살한 사람, 약물중독으로 실려 온 사람, 교통사고를 당하고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 등을 보며 다시 생사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만행을 거듭했지만 정처없는 방황이었다. 사람들이 때로는 무서워 눈발에 들어가 잠을 청하기도 했다. 제대로 먹지 못해 생병에 걸렸다. 독초를 먹고 죽다 살아나기도 했다. 어떤 군인은 안쓰러운 물골을 하고 있는 그에게 자기 밥을 내밀었고 낯선 할아버지는 자신을 데려다 새우를 입히고 밥을 먹였다. 어릴 때 어떤 이유에선지 길가던 아주머니가 다가와 백원짜리 지폐를 주며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던 말이 떠올랐다. 조건없이 베푸는 그들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다.

생사고해에서 만난 불교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늘 혼자였던 그에게는 음악이 유일한 위로였다. 어렸을 적 파도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달래던 기억이 그를 노래하게 만들었다. 지금껏 만난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 자신이 뭔가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다. 자비심은 아니었다. 무력함이었다. 고통에 대한 연대감이 타인의 일을 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 어떤 시절, 혼자 촛불을 켜놓고 자기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적도 있다.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었다. 그가 혼자서 바다와 이야기 하며 마음을 풀어놓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려 기타를 잡고 업소에서 라이브를 하기 시작했다. 시간날 때마다 절에 갔다.

전국을 방랑하다 경주에 있는 조그만 암자로 들어가게 된 것이 불교와의 첫 만남이었다. 반야심경을 읽는데 눈이 번쩍 뜨였던 것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니. 내가 그토록 괴로워하던 것에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이가 대체 누군가 싶었다. 그때부터 경전을 파기 시작했다. 대장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고 몇 년 동안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일요일이면 스님들 법문을 들으며 사찰을 돌아다녔다. 잠도 오지 않았다. 탑돌이를 하루종일하며 생사공극에 대해 탐구했다. 오랜시간 가졌던 의문이었는데 그는 간절하게 답을 구했다.

“여러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두 번 죽음을 목격하는 것은 슬픔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마주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켜보아 했던



가수 김무한은... 부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불교 명사 가수다. 1986년부터 전국의 군법당과 교도소를 돌며 불음을 전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7년간 80회 이상 임산모를 대상으로 태고 명상 음악회도 열었다. 1996년 '마음으로 가는 길' 음반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1999년에는 '다시 부르는 찬불가'를 발매했으며 태고 명상음반 '아기와 함께 온 선물' '김무한의 3분 명상' 등도 제작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hoto@hyunbul.com

고통받던 이들의 모습은 제게 그 답을 구하게끔 했죠. 다 인연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불교와의 만남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을 몰랐다면 어땠을까. 그는 끈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불법을 알고나서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감사함 역시 가지게 됐다.

“일체가 부처님이자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우린 우리가 만물전제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소금은 바다에서 만들어졌지만 작은 소금이 사실은 자신이 바다의 일부였음을 알게 된다면 큰 희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세상의 소금들한테 이야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전제고 우주라는 것어요.”

요즘 그는 15년 만에 새 앨범을 준비중이다. 음반 제목은 '잃어버린 소를 찾아서(심우도)'다. '화엄의 바다' '꽃의 바다' '마음이란 침묵의 노래' 등이 실렸다. 성철 스님의 글을 기반으로 만든 곡도 있다. '화'는 남부교도

소 재소자 합창단과 함께 부를 생각이다. 음원과 악보는 전국 교도소에 보내질 예정이다.

“생사근본문제가 해결됐으면 세상에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장애인이예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자신의 본성을 바로 보지 못하기에 윤회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길을 걷다보면 중도 보고 소도 본다 그랬다. 누구나 좋은 것만 보려하는 세상에서 그는 누구도 보려하지 않는 추하고 더럽고 거친 삶의 민낯을 직시했다. 만행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냐고 물었다. 그는 다시 바다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물음은 바다에서 시작됐고 바다에서 답을 얻었다.

“그들은 내가 누군지 알게 해준 빗방울들이었어요. 우리는 각자 세상위로 떨어지는 수많은 빗방울들처럼 보이죠. 그러나 저와 그들은 이미 바다였습니다.”

글=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전법일기

“다문화 신부들에게 잘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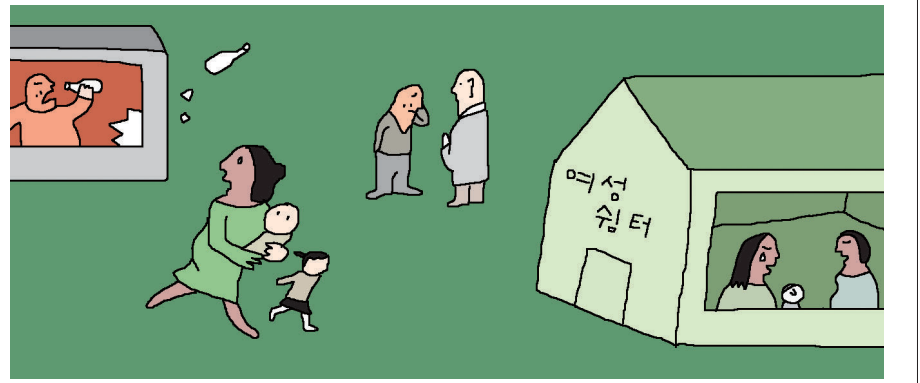
“내 마누라!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이주여성 쉼터 입구에서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들이 뭔데 내 마누라, 내 새끼 데려가려는데 막아!”라며 들어오려는 사나 이와 실감이 벌어졌다. 욕설과 고함, 폭력이 난무하면 결국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 긴급 피신한 여성은 애를 안 주겠다 고 울고, 남편은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려 가려고 하고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그 정도 양보안하면 누가 집에 들어가겠냐고 되 물으면 남편들의 기가 꺾인다.

이내 역할을 도와주는 양성평등 문화에서 자란 여성과 보수적인 남성위주의 삶 속에서 자란 남편과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적지 않아 이 문제가 극

었는데 여기서는 물건이 되었어요.”

이 말을 듣는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우리나라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결혼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선족, 95년 이후부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 국제결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05년도부터는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등 점차 그 나라가 다문화 화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여성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장치가 없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다. 남편이나 시댁 쪽에서는 그 여성에게 큰 돈을 들었다고만 여긴다. 하지만 화에서 자란 여성과 보수적인 남성위주의 삶 속에서 자란 남편과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적지 않아 이 문제가 극



그림·박구원

복되던 원만한 합의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주 여성도 있다.

정답은 서로가 공통분모를 찾아 조금씩 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술로 인한 문제는 쉽사리 해결 되지 않는다. 술을 먹은 다음날이면 순한 양이 되는 남자들이 있다. 그렇다고 밤새 아내를 괴롭힌 상처와 흔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 여성들이 남편에게 바라는 점을 물어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다.

“술을 자주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담배 좀 그만 피면 좋겠어요.” “밤늦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반 가정에서 이런 조건들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면 될 일에 밖으로 나돌아 다니면 가출한다는 격정에 몇 년씩 집안에 가두는 경우도 있다. 언젠가는 한국 땅에서 자녀를 키우고 살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면 좋을 일을 나누고 윤쪽달씩 못하게 말리면 그게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먼 곳에서 자신을 믿고 외준 용이 있는 신부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손을 내밀려는 마음, 그 마음이면 꼬이고 형용사인 실타래도 천천히 풀려갈 수 있다. “한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인간이

을 가져간다.

이주 여성들의 선택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희망을 선택한 것이다. 불행해지기 위해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구나 그들은 아버지나 형제로부터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는 문화가 아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더 높다. 이런 문화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남존여비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을 부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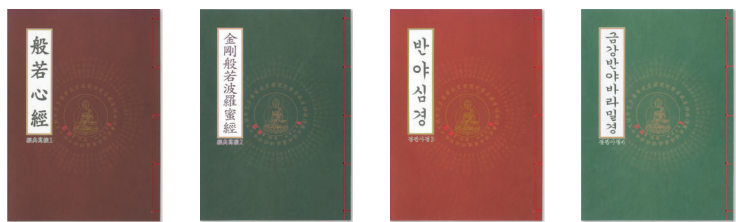
특히 조금 굶뜨기만 해도 명칭이라고 하거나 그들이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 빨리 너희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낭만은 이 여성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 신랑과 평균 12세 이상의 나이 차이, 언어소통 부재, 부부갈등, 시부모와의 갈등은 이주여성들이 넘고 넘어야 할 현실의 산이다. 고맙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함께 노력하며 더 즐겁게 살아보자는 말... 남편들이여, 이 말부터 연습하고 표현해 보자.



진오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구미 대문사 주지)

경전사경

대형 금강경 탑다라니 사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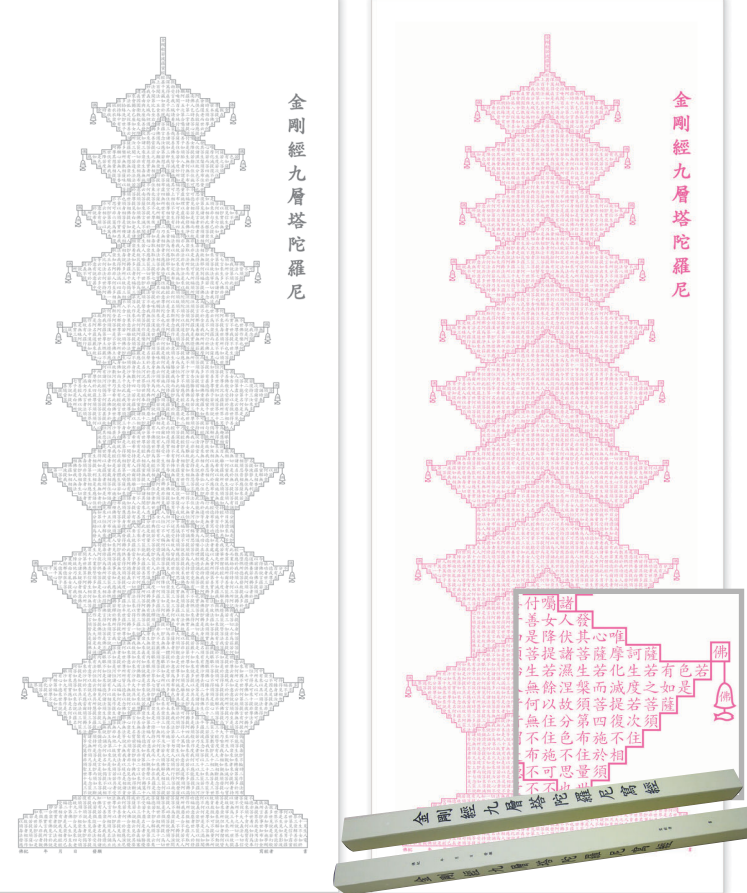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내지: 70장 자연색메트지 표지: 레저크지 옴셋 4 크기: 220mmx310mm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출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구 성: 한지날장 크 기: 636mmx313mm

여러종류의 사경책·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대형 금강경 탑다라니 사경지 <종이박스포함> 정가 5,000원 할인가 @4,000원(50장 이상) 색상: 먹색/적색 중책1 포장: 종이박스 중이사이즈: 68cmx195cm 전

통재래한지



영가옷 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 B형-여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영가옷 D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D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수지영가옷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700 (100벌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할인가 160 (60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한지·인쇄점은 위패(대/중/소)/인쇄점은 위패(대/소) 정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한지·인쇄점은 영가옷(남/여) 정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 (1000벌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 서적, 사경지, 연등, 염주, 향, 양초, 다포, 4.8용품, 백중용품]